

제15권 18호

2025. 9. 15~2025. 9. 28

하나로여겨된
모두의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논단

상법 개정에 대한 소고

이슈분석

피지컬AI, 상상은 현실이 된다

금융경영브리프

BNPL 시장, 글로벌과 국내 간 온도 차이
SC · Ant · SWIFT, ISO 20022 下 결제 솔루션 공동개발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위원	김혜미(hmikim)
연구원	유승원(youth1)

논단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래수

이슈분석

연구위원	김문태(kmt)
------	----------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박지홍(jhpark525)
연구원	이시온(sieunyi)

금융지표

연구원	서유나(yuna.seo)
-----	---------------

제15권 18호

2025. 9. 15~2025. 9. 28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상법 개정에 대한 소고
- 04 **이슈분석** 피지컬AI, 상상은 현실이 된다
- 08 **금융경영브리프** BNPL 시장, 글로벌과 국내 간 온도 차이
 SC · Ant · SWIFT, ISO 20022 下 결제 솔루션 공동개발
- 12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상법 개정에 관한 소고*

박 래 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국내 상장주식의 저평가에 대한 요인인 기업지배구조 문제, 소수 주주들의 권익 보호 미흡 등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3%룰,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그간 소홀했던 주주권 보호라는 지배구조개혁의 명분이 강하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바 상법 개정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후속 조치와 정상적인 경영권 보호 장치가 동시에 마련되어 주주권의 강화와 기업가치 제고라는 궁극적인 목표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그간 논란의 중심이었던 상법 개정이 지난 7월 22일과 8월 25일 각각 1차와 2차에 걸쳐 공식발효되었다. 비록 일부 조항은 내년 초나 그 이후로 발효가 연기되었고, 여전히 3차 개정을 통해 추가적인 개정안이 예고되어 있긴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상법 개정의 큰 흐름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이번 논단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그간의 상법 개정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보다는 향후 상법개정(안)이 가져올 영향을 고려하고 그 취지를 살리면서도 불필요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 상법 개정은 국내 상장주식들의 저평가에서 비롯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논란 속에서도 굳이 상법 개정을 불리운 저간의 사정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그간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 신주발행이나 실권주 배정, 부당한 합병비율에 의한 합병시도, 상장사 지배 주주 주식의 프리미엄부 매매,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등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관행들이 경영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심심찮게 발생하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국내 상장주식들의 저평가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 특히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소수 주주들을 포함한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게다가 개인투자자들이 플랫폼을 통한 소액주주연대를 통해 주주참여 및 주총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행동주의 펀드와

주주권의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상법 개정의
근본적인 배경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도 늘어나면서, 국내 증권시장 내 주주권의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행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주주”에 대한 직접적 의무는 명문 규정이 없었던 것이 제약으로 작용하여, 그간 합병, 물적 분할, 전환사채 발행 등에서 소수 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해도 이사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관련하여 국제적 흐름을 살펴보자면 영국·일본 등은 이미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을 통해 ESG, 협력적 주주관여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전자주주총회 역시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보편화되어 우리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 이사의 충실의무는 적용 및 책임 범위에 대한 후속 조치 필요

먼저 이번 상법개정으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 및 내용 확대 건에 대해 살펴보자. 상법 개정 전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 부담하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었지만, 개정으로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 역시 신설되었다. 이는 이사가 부담하는 충실의무는 단순히 회사의 자산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히 대할 의무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대개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면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지만, 회사의 손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주주에게 손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간 부족했던 사법부의 주주 보호 판례를 개선하고 국내 자본시장에서 소수 및 전체 주주에 대한 인식을 변화를 위해,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주의 충실의무 적용
범위와 이사의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후속조치 필요

이러한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향후 특정안전(합병, 분할, 자사주 거래 등)에서 주주 이익 침해 주장으로 관련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당청구 등 법적 분쟁의 증가 가능성과 이에 관련하여 이사회 판단의 기록·사유 부족시 사후 책임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서 교육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조례의 도입이 오히려 교권침해가 빈번해진 전례를 참조 삼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기한 조치가 법 개정 취지와 달리 불필요한 법리 논쟁이나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을 치를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정상적인 경영권에 대한 보호 장치와 더불어 주주 충실의무의 적용 범위와 이사의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전자주주총회는 절차적, 법적 분쟁 위험을 신중히 고려

2027년 발효될 전자주주총회의 병행은 기업과 주주간 대화가 강조되면서 주주권의 보호 관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기존의 물리적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의 병행개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도입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기업 자율 선택권을 주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한해 의무화한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통신장애 등 절차적 오류에 대한 보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자칫 회사운영의 차질이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시행령에서는 다양한 실무적 쟁점과 관련된 위험 해소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통신 장애 등
절차적 오류 보완,
불필요한 법적 분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주주총회
도입이 필요

:: 상법 개정은 주주권의 강화와 기업가치 제고 균형을 고려해야

추가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의한 경영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명칭변경과 독립이사비율의 1/3 이상으로의 강화, 그리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합산 3%로의 제한하는 내용 등은 추후 도입 예정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과 함께 주주권의 강화를 위한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방안으로 이해된다. 다만, 그간 소홀했던 주주권 보호라는 지배구조개혁의 명분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상적인 경영의 뒷받침이라는 균형의 유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상법 개정은 단순히 법조문 변경을 넘어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총·독립이사·감사위원 등 지배구조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궁극적으로 소수 주주 권익을 강화하려는 “주주 친화적 개정”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번 및 추후 개정의 방향은 그간 소홀했던 “주주 권익 강화”와 더불어 “기업가치 제고”라는 궁극적인 목표까지 고려되었으면 한다. 

상법 개정은 주주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 제고라는
궁극적인 목표도
고려되어야

피지컬AI, 상상은 현실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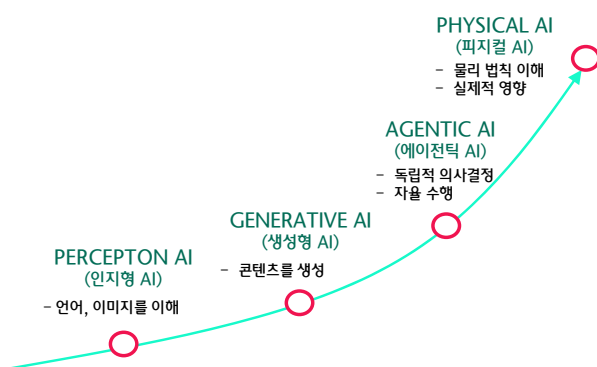
김 문 태 연구위원

민관의 피지컬AI 투자 확대로 ‘아톰, 건담, 아이언맨’ 등 상상 속의 기술이 현실화되고 있다. 우선 ‘인간 대체’ 측면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청소기 등 자율적 행위자로서 로봇이 기존 노동과 소통 방식의 변화를 야기하며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 ‘인간 증강’ 측면에서는 드론, 자율주행차, 엑소슈트(웨어러블) 등이 작업 능력을 증진하고 신체적 장애 극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사회·경제적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피지컬 AI 시대의 생산적, 포용적 금융의 역할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피지컬AI의 경제적 활용이 가시화되면서 민간 기업 투자 및 정부 육성 정책 확대

- AI 선도 기업 중 하나인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CES 2025('25.1)에서 AI가 인식형AI, 생성형AI, AI에이전트를 거쳐 피지컬AI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 [AI 발전 단계] ①인식형AI : 텍스트, 이미지 인식 및 처리 → ②생성형AI : 콘텐츠를 생성 → ③AI에이전트 : 자율 작업 수행 → ④피지컬AI : 물리적 실체와 결합
 - 피지컬AI :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공간과 같은 자율 시스템이 실제 세계에서 인식하고 이해하며 복잡한 행동을 수행^[1]
- 엔비디아의 피지컬AI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 공개('25.1),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출시('25.6) 등과 같이 기술 및 사업모델 측면의 새로운 시도와 동시에 글로벌 빅테크의 피지컬AI 관련 기업 투자도 확대
 - MS, 아마존 : AI 로봇 기업 Figure AI 투자, 구글 : 휴머노이드 애플트로닉 투자

■ AI 발전 단계 전망(CES 2025)



자료 : 엔비디아 자료 변형

■ 국가별 피지컬AI 육성책의 핵심 전략 및 주요 내용

국가	핵심 전략	주요 내용
미국	시장 중심의 생태계 강화	- AI 기술 자국우선주의 기조 - 경쟁력 있는 연구기관과 민간 생태계를 바탕으로 산학 협력 지원
중국	정부 주도의 시장 선점	- 중앙정부 차원의 중장기 지원, 육성 계획에 의해 추진 - ‘중국제조2025’, ‘산업발전기금’ 등
일본	사회 문제 해결 수단	- 기존 산업용 로봇 경쟁력 보유 - ‘로봇 신전략’, ‘문샷 프로그램’ 등으로 고령화, 인구 감소 대응
한국	AI 강국 도약	- 국산 AI 반도체와 기반 모델, 전략기술 로드맵 재정비 등 추진 - AI 강국 도약의 정책 목표 실현

자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하나금융연구소

[1] 엔비디아 홈페이지, <https://www.nvidia.com/ko-kr/glossary/generative-physical-ai/>

- 피지컬AI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각 국 정부는 미래 기술 선도, 노동력 부족 해소, 생산성 향상, 의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육성책 확대
 - 미국 : AI 분야의 선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민간 생태계 및 산학 협력을 지원
 - 중국 : 피지컬AI 관련 ‘산업 발전 기금’ 조성 등 국가 주도의 투자 확대
 - 일본 : 고령화, 인구 감소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산업 육성
- 한국도 ‘12대 국가전략기술’,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 사업’, ‘K-휴머노이드 연합’ 등을 통해 총 3조원 이상을 AI 기반 로봇 산업에 투자하여 경쟁력 강화를 추진

■ 피지컬AI 기술은 ‘인간 대체’ 및 ‘인간 증강’이라는 2개의 흐름 안에서 상상을 현실화

- 피지컬AI의 발전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기술을 현실화하고 있으며, 과거 창작물 속 로봇에 대한 상상력은 인류의 욕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피지컬AI 기술 발전의 중요한 영감이자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청사진 역할을 하고 있음
- 오늘날 현실화되고 있는 피지컬AI의 두 가지 큰 흐름, 즉 ‘인간 대체’와 ‘인간 증강’ 역시 이러한 상상력에 뿌리를 두고 있음
 - 자율적 행위자 범주에는 ‘휴머노이드’ / ‘지능형·자율 로봇’이 포함되며,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을 수행하면서 인간의 역할을 대체
 - 인간 능력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로봇은 ‘탐승·조종형 로봇’ / ‘웨어러블 로봇’이 해당되며, 인간이 시스템 중심에서 신체적, 감각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용

■ [인간 대체 : 아톰 등] 행위의 자율적 주체인 로봇이 소통과 노동 방식의 변화 야기

- (휴머노이드) ‘아이, 로봇’이나 ‘아톰’이 인간과 유사한 모습으로 소통하고 노동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는 모습은 하나의 형태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범용성’과 정서적 교감(친구, 가족 등)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투영

■ 창작물 속의 로봇과 주요 주제, 피지컬AI 기술의 현실화 사례(인간 대체 분야)

구분	창작물 속의 로봇 예시			주요 주제	현실화 사례
휴머노이드	철완 아톰	아이, 로봇	피노키오	- 인간과 로봇의 감성적 교류 - 로봇의 인간 대체	 - 양팔, 이족, 관절 등 인간과 유사한 구조의 로봇과 시가 결합 - 인간 대체(노동, 대화 등)의 ‘범용성’을 추구
					
지능형·자율 로봇	월-E	R2-D2	터미네이터	- 인간 개입 없이 임무 수행 - 로봇의 전문성, 효율성 극대화	 - 로봇청소기, 물류로봇(AMR), 서빙로봇 등 - 특정 임무에 적합한 구조 - 시로 환경 분석 및 임무 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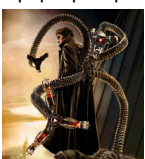
자료 : 데츠카프로덕션, 20세기 폭스, 디즈니, 픽사, 워너브라더스, 피규어 AI, 삼성전자, 하나금융연구소

- 현실에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피규어 AI의 ‘Figure 01’ 등이 인간의 작업 환경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범용 로봇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물류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할 대안으로 기대
 - 또한 ‘7살 어린이’ 정체성의 AI 노인돌봄로봇 ‘효돌’은 소통, 건강 관리 등 제공
- (지능형·자율 로봇) ‘월-E’, ‘터미네이터’가 특정 목적(쓰레기 처리, 경호 및 전투)을 위해 최적화된 형태로 설계되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새로운 노동력에 대한 지향점을 묘사
 - 물류센터의 AMR(자율이동로봇), 레스토랑의 서빙·조리 로봇, 공항의 안내 로봇 등은 이미 특정 영역에서 일정 수준의 효율성을 입증

■ [인간 증강 : 건담 등] 신체적·감각적 한계를 초월하여 생산성 향상, 장애 극복

- (탐승·조종형 로봇) 원격형(철인28호), 탑승형(건담, 퍼시픽림) 로봇은 초월적인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영웅적 서사와 함께 전쟁 등의 기술 남용 위험을 경고
 - 기동전사 건담^[2] : 병기 발전에 따른 전쟁의 비극(가족의 죽음 등)을 묘사
- 효율성을 위해 상상과 달리 非인간형 구조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원격 수술 로봇, 드론, 자율 주행차, 협동 로봇 등으로 인간의 감각과 능력을 확장
 - 원격 수술 로봇 다빈치(인튜이티브社) : 손떨림이 없고 미세조정이 용이
 - 협동로봇 : 기존의 산업용 로봇과 달리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동일 공간에서 협력하며 작업을 수행. 주로 로봇팔의 형태를 띄며 작업의 변경과 학습이 용이
- (웨어러블) ‘아이언맨’ 슈트가 초인적인 힘과 비행 능력을 부여하고, ‘로보캡’이 손상된 신체를 대체하여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은 인간 강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
 -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은 작업자의 근력을 보조하고, 의료용 재활 로봇은 보행을 돕는 등 실제 노동 현장과 헬스케어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창작물 속의 로봇과 주요 주제, 피지컬AI 기술의 현실화 사례(인간 증강 분야)

구분	창작물 속의 로봇 예시			주요 주제	현실화 사례
탐승·조종형 로봇	철인 28호	기동전사 건담	퍼시픽림	- 초월적인 힘에 대한 동경 - 통제와 책임 (전쟁 등) - 원격 사회	 - 효율성을 위해 非인간형 구조가 주로 활용됨 - 드론(원격 조정), 자율 주행차(탑승형), 협동 로봇 등으로 발달
					
웨어러블	로보캡	아이언맨	닥터 옥토퍼스	- 신체 능력 증강 - 장애·노화 극복 - AI와 결합하여 효과성 극대화	 - 엑소슈트, 외골격(강화복) - 의료용 재활 로봇, 장애 보조 로봇, 군인 및 노동자의 신체 능력 증강을 위해 개발
					

자료 : 코분사, 반다이, 유니버설 픽처스, MGM, 디즈니, 소니픽처스, 로봇신문, LG디스플레이, 테슬라, 사이버다인, 하나금융연구소

[2] ‘건담’의 작품상 설정은 ‘모빌 슈트’로 웨어러블에 가까우나 조종석, 크기 등을 고려하여 탑승형 로봇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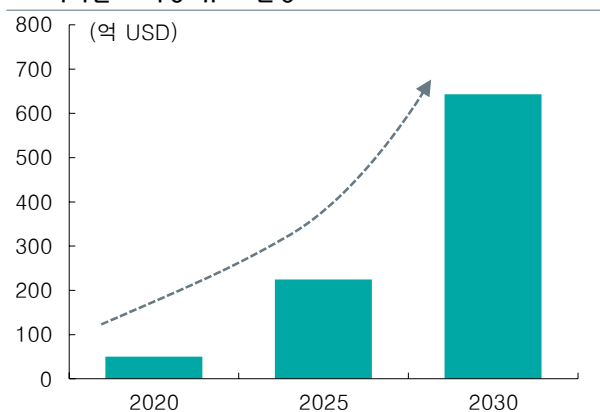
■ 피지컬AI의 현실화는 산업, 소상공인, 개인에 걸친 전방위적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

- (산업) 제조업, 물류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물류창고 등 피지컬AI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과 자본집약적 구조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
 - 또한 피지컬AI 도입은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공정 관리와 품질 향상을 야기
- (소상공인) 서빙·조리 로봇 등은 구독형 서비스(RaaS, Robot as a Service) 모델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낮춰 도입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인력난을 해결하고 24시간 운영 체제를 구축하여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모색
- (개인) 1인 가구 시대의 소통 로봇을 통한 고독 방지, 'AI홈' 확산에 따른 가사 노동 해방,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맞춤형 의료 및 근력 보조 등이 역할이 기대됨

■ 사회·경제적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의 생산적, 포용적 역할을 모색할 필요

- 상상 속에 존재하였던 피지컬AI가 기술 발전, 민간 투자, 공공 지원 등으로 현실화 되고 산업, 소상공인, 개인에 걸쳐 적용되면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됨
 - 피지컬AI 시장 규모는 25년 약 225억 달러에서 30년 643억 달러로 성장 전망
- 다만, '피노키오의 거짓말'로 묘사된 AI의 행위와 책임, 로봇 도입에 따른 인간의 노동 배제 문제, 전쟁과 같은 기술 남용 등은 사회적 논의가 확대될 필요
 - 최근 저비용, 고효율 전투 병기로 주목받는 '드론'이 원격, 무인화로 살인에 대한 저항감을 낮추고 '터미네이터'와 같은 로봇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피지컬AI가 가져올 변화에 맞춰 금융권은 新성장 동력을 지원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생산적·포용적 역할을 모색해 볼 필요
 - 생산적 금융 : 로봇 설비 도입을 위한 특화 대출, RaaS 구독료 연계 결제
 - 포용적 금융 : AI, 로봇 소액 투자로 자본소득 증대에 따른 생산 요소 간 양극화 완화, 자율주행·서빙로봇 등의 AI 책임 보험 고도화로 사회 불안감 해소 

■ 피지컬AI 시장 규모 전망



자료 : Statista, SPRI 자료 재인용

■ 피지컬AI 시대의 금융의 생산적, 포용적 역할 모색

적용 분야	금융의 역할 모색	관련 기술
산업 (제조, 물류 등)	- 스마트 팩토리 전환에 필요한 설비투자(CAPEX) 자금 제공 - 기술 금융 역량 강화	산업용 로봇
소상공인 (외식, 서비스 등)	- RaaS 모델 연계 구독형 금융 - 정부 정책 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렌탈, 리스 상품 개발	전문 서비스 로봇
개인	- 개인 서비스 로봇 구매 할부 금융 'AI 홈' 연계 결제, PB 서비스 구축 - 보조 로봇 지원(시니어, 장애인 등)	개인 서비스 로봇
기타	- AI 판단 및 행위 관련 배상책임보험 - AI, 로봇 대상 소액 투자 상품 확대	자율주행, 드론, 로봇 등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로봇 구분은 국제로봇연맹, IFR 분류 기준)

BNPL 시장, 글로벌과 국내 간 온도 차이

박지홍 연구위원

2025년 기준 글로벌 BNPL 시장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BNPL 업체 외에도 전통 금융회사 및 빅테크의 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BNPL 채권 유통 시장도 등장하고 있다. 또한, 개인 대출을 넘어 기업 대출 시장에서도 BNPL 서비스를 접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 시장은 글로벌과 달리 BNPL 이용 실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한다. 다만, 소비자 선택권 확대, 신규 비즈니스 파생 관점에서 글로벌 BNPL 시장의 성장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BNPL은 신용카드 대체수단으로 주목받으며, 글로벌 BNPL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1]

- World Pay에 따르면 2024년 기준 BNPL(Buy Now, Pay Later) 시장 규모는 3,42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30년까지 5,80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될 전망
 - 2014년 22억 달러 규모였으나 10여년 만에 150배 이상 성장
- BNPL은 상품 구매 시 무이자 또는 낮은 비용으로 분납하여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신용카드의 대체 수단으로 주목
 - BNPL 이용 시 BNPL 업체는 판매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잔금을 즉시 지급하며,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는 무이자 분할 상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특히,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호주 등에서는 전체 온라인 결제에서 BNPL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이상을 차지

■ 전통 금융회사 및 빅테크의 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BNPL 채권 유통 시장도 등장

- 대표적인 BNPL 업체인 클라르나(스웨덴), 어펄(미국) 외 JP모건 체이스, 페이팔 등 금융회사나 빅테크도 BNPL 서비스 또는 유사한 분할 결제 서비스를 제공
 - 주요국 외에도 콜롬비아(Addi), 싱가포르(Atome), 사우디아라비아(Tamara) 등에서도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등장
- 또한, 글로벌 자산운용사 및 헤지펀드들은 만기가 짧은 편인 BNPL 채권을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주목하고 BNPL 채권 및 자산유동화증권(ABS) 매입을 확대
 - 엘리엇 어드바이저스(헤지펀드)는 클라르나의 BNPL 채권 390억 달러, KKR(사모펀드)은 페이팔의 BNPL 채권 440억 달러를 인수했으며, 어펄은 120억 달러 ABS 발행에 성공

[1] "Buy now, pay later is taking over the world. Good", The Economist, 2025.08.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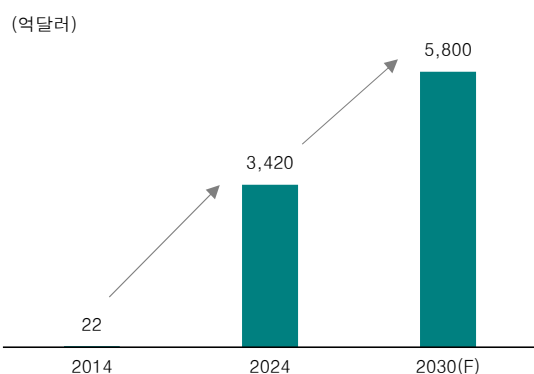
■ 글로벌 BNPL 시장은 개인대출(B2C)에 그치지 않고 기업대출(B2B)까지 확대되는 모습

- 초기 BNPL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B2C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최근에는 무역신용, 매출채권 팩토링 등과 유사한 역할도 수행하며 B2B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
 - 외상대금을 BNPL이 대신 결제하고 일정 기간 후 구매기업에게 대금을 받는 방식
- 최근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들도 동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데, 개인대출 시장에 비해 혁신의 속도가 더딘 반면, 시장 규모는 4~5배 가까이 더 크기 때문
 - 산탄데르와 BNP Paribas 등 기존 금융회사 뿐 아니라 Adyen과 같은 핀테크 결제 플랫폼도 B2B BNPL 업체와 협력하여 기업 대상의 B2B BNPL솔루션을 출시

■ 국내와 다른 환경, 채무 위험 등은 상존하나 글로벌 시장 성장세는 여전히 주목할 필요

- 국내 BNPL(소액후불결제)의 신규 결제액은 2025년 상반기 기준 1,522억원을 기록하며 2023년 상반기 2,631억원에서 40% 이상 감소^[2]
 - 국내는 해외와 달리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소액후불결제의 낮은 한도(30만원) 및 규제 등으로 BNPL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
- 또한, BNPL은 온라인에서 상대적으로 젊고 신용도가 낮은 계층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다중 채무에 따른 연쇄적 채무 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
 -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BNPL 연체율은 2%대 수준이나, 경기 침체기 도래 시 유사한 차입자의 신용카드 연체율 수준(10%)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
 - 다만, CFPB는 최근 BNPL을 이용하더라도 다른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으며, BNPL 대출을 전액 상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상반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중심의 국내 신용공여 환경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제약 측면, BNPL 시장 확대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등장(채권 유통 시장, B2B BNPL 등) 고려 시 국내 BNPL 시장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글로벌 BNPL 결제 규모 추이 및 전망



자료 : Global Payment Report 2025(World Pay)

■ 유사 차입자의 BNPL과 신용카드 간 연체율 비교

구분	BNPL 이용자의 연체율	BNPL 이용자와 유사한 집단이 사용한 신용카드의 연체율
전체 (2019~2022년)	2.1%	10.1%
2019년	1.9%	14.7%
2020년	1.5%	12.3%
2021년	2.5%	10.1%
2022년	1.9%	8.7%

자료 :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2] “해외선 잘나가는데... 포그라드는 한국 BNPL”, 매일경제, 2025.08.18

SC·Ant·SWIFT, ISO 20022 下 결제 솔루션 공동개발

이 시 은 연구원

SC은행, Ant, SWIFT는 은행과 전자지갑을 직접 연결하여 국가 간 송금결제를 하는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했다. 직접 연결을 통해 송금·결제 과정이 간소화되었고,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기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SWIFT 망을 활용하여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도입이 가능해 획기적이다. 국내은행들도 보다 더 고도화된 송금·결제 기술 개발 및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SC은행, Ant 및 SWIFT는 최초로 은행과 전자지갑간 실시간 송금·결제 거래 실시^[1]

- SC은행, Ant 인터내셔널, SWIFT는 ISO 20022^[2] 메시지 표준을 활용하여 SC은행 계좌와 Ant의 전자지갑(e-wallet)을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를 공동 개발
 - Ant 인터내셔널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글로벌 디지털 금융 기술 기업으로, 36개 전자지갑 서비스와 17억 개의 계좌를 보유한 알리페이+(글로벌 결제 플랫폼)를 운영
-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SWIFT에 Ant의 전자지갑을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송금·결제 패러다임을 형성
 - SWIFT망은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 11,500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사용 중인 세계 최고의 보안 금융 메시징 네트워크로 해외 송금 시 은행 간 정보 전달에 필수적

■ 은행-전자지갑 간 연결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간편한 해외 송금이 가능

- (안전성) SWIFT는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금융 메시징 네트워크로 연결 대상을 전자지갑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거래를 보장
- (간편화) 은행 계좌-전자지갑 간 직접 연결을 통해 은행 계좌에서 전자지갑으로의 송금 단계를 간소화하여 보다 더 낮은 송금 수수료로 빠른 송금이 가능
- (금융접근성)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해 금융 접근성이 확대되며, 해당 서비스 사용으로 금융 기록을 쌓아 대출 등 금융 서비스 이용 가능

[1] “Ant International, Standard Chartered and Swift have collaborated to pioneer bank-to-wallet payment solution backed by ISO20022”, Standard Chartered, 2025.8.27

[2] ISO 20022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의한 금융 거래를 위한 전문 메시지 작성에 사용되는 표준 형식으로, SWIFT 등 주요 국제 금융 네트워크는 '25년까지 ISO 20022로의 전면 전환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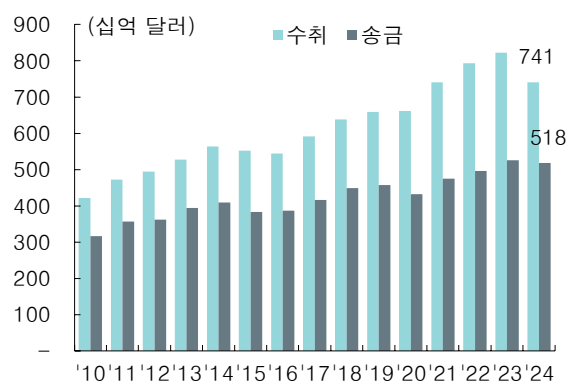
■ 전 세계적인 인프라가 갖춰진 SWIFT망을 활용해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 기대

- 해당 기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구축되어 있는 SWIFT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빠른 규모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전자지갑 사용률³⁾이 높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소비자와 기업에게 다양한 송금결제 옵션을 제공
 - SC은행 계좌-전자지갑 간 첫 거래는 싱가포르에서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홍콩 내 필리핀 이주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⁴⁾

■ 국내 시중은행도 해외 송금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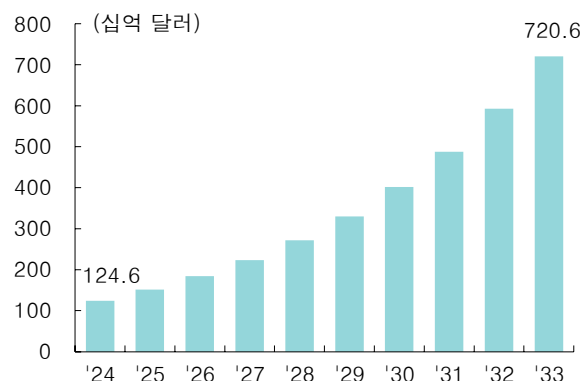
- 국내은행들은 SWIFT 망 내에서 해외 전자지갑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내외 송금결제 기술을 고도화할 필요
 - 현재 국내은행들은 해외 전자지갑과 연동해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은행 내 시스템이나 특정 지역 기반 서비스 협력 모델에 머무는 중
- 또한, 국내은행들도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 간 연계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의 무역·금융 업무 연계 강화를 위해 ISO 20022 표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
 - SWIFT에서 '25.7월 기준 ISO 20022 표준을 활용하여 180+개국이 송금을, 220+개국이 수취를 하고 있어, 전체 송금결제의 49.8%가 이미 ISO 20022 표준 메시지로 전환⁵⁾
- 향후 디지털 결제 신기술 및 국제 금융 표준 규격의 빠른 도입을 위해 전문가 양성이 동반될 필요 

■ 전 세계 해외송금(Remittance) 추이



자료 : World Bank

■ 전 세계 전자지갑(e-wallet) 시장 규모 추이



자료 : Business Research Insights

[3] 동남아 모바일월렛 사용률 79% (“The future of commerce on the cusp of chance”, VISA, 202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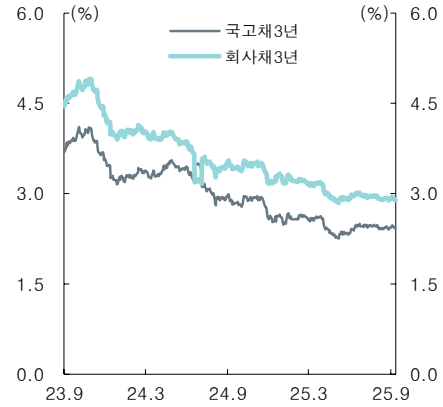
[4] “Ant International, Swift and Standard Chartered partner on cross-border remittance service”, South China Morning Post, 2025.8.27.

[5] “Highlights on CBPR+(July 1st, 2025–July 21st, 2025)”, SWIFT, 2025.8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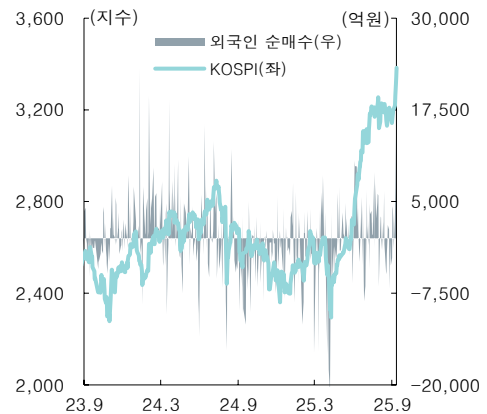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 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3년말	3.91	3.83	3.69	3.90	3.15	3.16
'24년말	3.33	3.39	3.01	3.28	2.60	2.76
8월말	2.52	2.53	2.49	2.91	2.43	2.58
9월 5일	2.54	2.57	2.51	2.93	2.46	2.62
9월 8일	2.52	2.56	2.51	2.92	2.45	2.61
9월 9일	2.51	2.54	2.51	2.90	2.43	2.58
9월 10일	2.50	2.55	2.52	2.90	2.43	2.57
9월 11일	2.52	2.54	2.51	2.89	2.42	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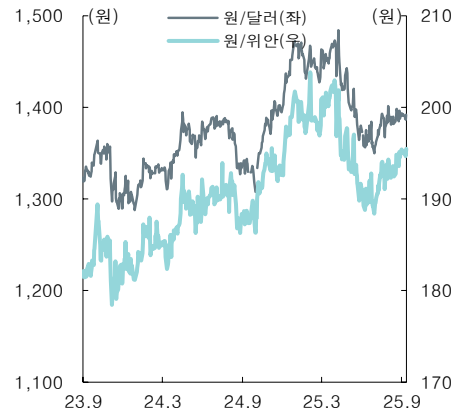
::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3년말	2,655.3	94,189	460	7,017
'24년말	2,399.5	53,155	304	-1,207
8월말	3,186.0	89,693	245	-3,725
9월 5일	3,205.1	109,420	324	-1,380
9월 8일	3,219.6	82,178	372	2,316
9월 9일	3,260.1	106,286	440	6,842
9월 10일	3,314.5	137,035	565	13,848
9월 11일	3,344.2	149,470	436	3,024



::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3년말	1,288.0	911.0	181.2	1,425.1
'24년말	1,435.5	928.0	197.0	1,487.9
8월말	1,390.1	945.2	194.9	1,624.1
9월 5일	1,391.0	943.4	195.0	1,629.7
9월 8일	1,390.6	942.6	195.0	1,635.8
9월 9일	1,387.9	941.7	194.9	1,624.9
9월 10일	1,386.6	940.4	194.7	1,621.6
9월 11일	1,391.8	945.2	195.5	1,6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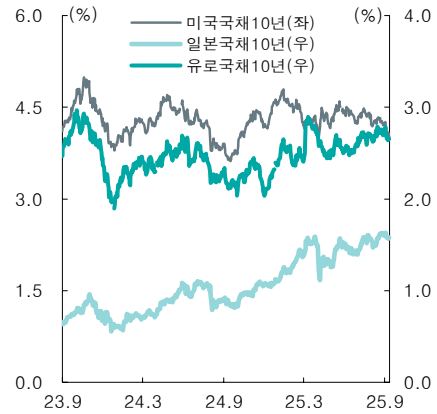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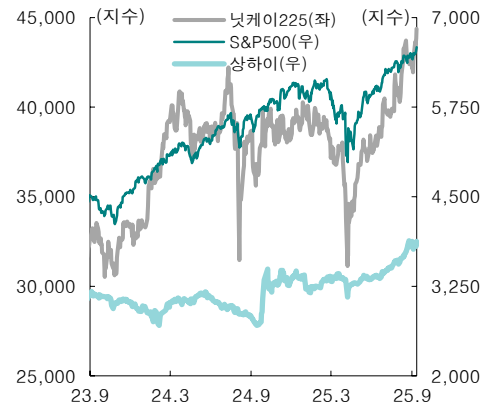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3년말	5.33	5.33	4.25	3.88	0.61	2.02
'24년말	4.33	4.31	4.24	4.57	1.10	2.37
8월말	4.33	4.36	3.62	4.23	1.60	2.72
9월 5일	4.33	4.36	3.51	4.07	1.58	2.66
9월 8일	4.33	4.36	3.49	4.04	1.57	2.64
9월 9일	4.33	4.36	3.56	4.09	1.57	2.66
9월 10일	4.33	4.37	3.54	4.05	1.57	2.65
9월 11일	-	4.37	3.54	4.02	1.58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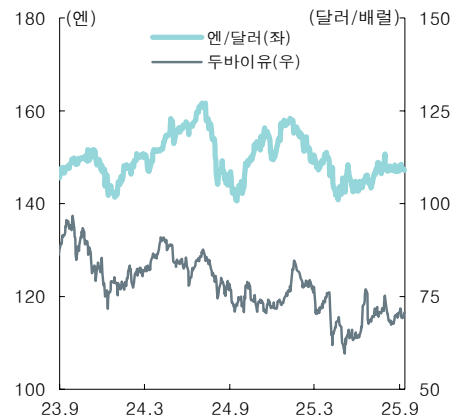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3년말	4,769.8	33,464.2	2,974.9	4,521.4
'24년말	5,881.6	39,894.5	3,351.8	4,896.0
8월말	6,460.3	42,718.5	3,857.9	5,351.7
9월 5일	6,481.5	43,018.8	3,812.5	5,318.2
9월 8일	6,495.2	43,643.8	3,826.8	5,362.8
9월 9일	6,512.6	43,459.3	3,807.3	5,368.8
9월 10일	6,532.0	43,837.7	3,812.2	5,361.5
9월 11일	6,587.5	44,372.5	3,875.3	5,386.8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3년말	141.36	1.106	79.1	2,083.5
'24년말	157.36	1.036	75.9	2,641.0
8월말	146.99	1.168	70.5	3,516.1
9월 5일	147.37	1.172	69.2	3,653.3
9월 8일	147.44	1.176	69.2	3,677.4
9월 9일	147.31	1.171	69.7	3,682.2
9월 10일	147.36	1.169	70.4	3,682.0
9월 11일	147.18	1.173	70.7	-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5권 18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5년 9월 12일 인쇄

2025년 9월 15일 발행

발행인 이호성

편집인 안성학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5권 18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